

# 트럼프 집권 2기 물류공급망 변화와 시사점

## 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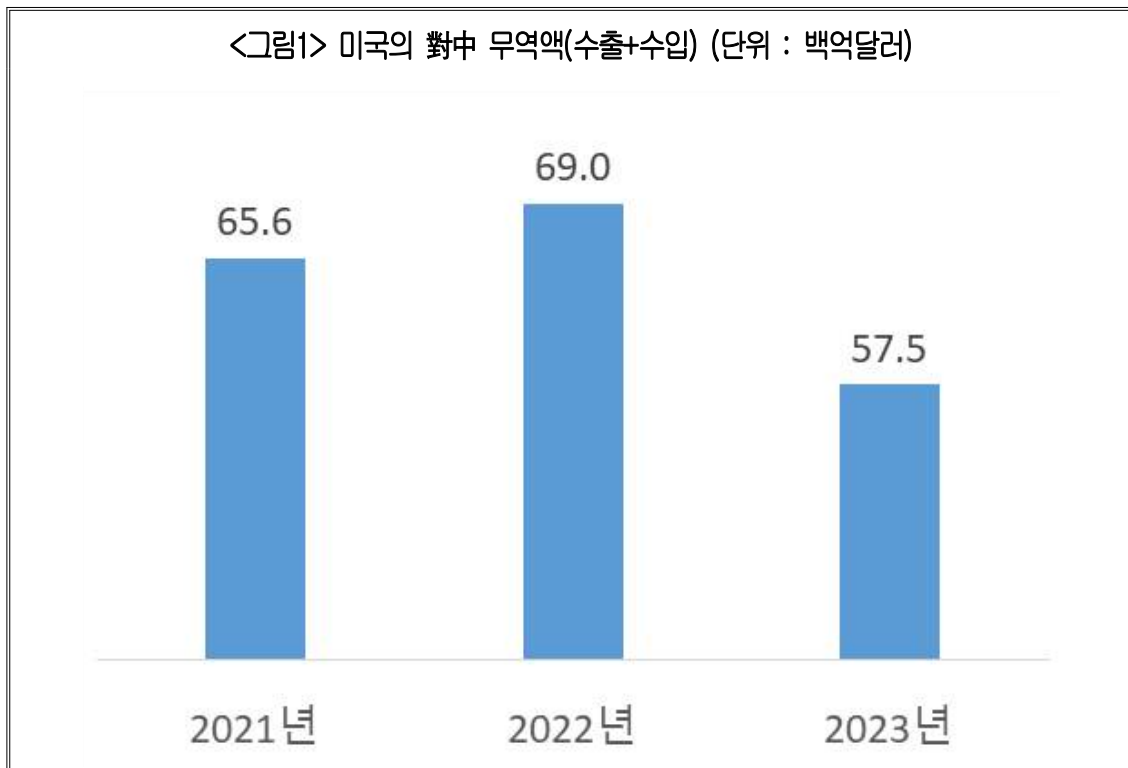
1. 최근 미국 무역 동향
2. 트럼프 집권 2기 물류공급망 변화
3. 기업 전략방안
4. 정책과제

2024. 11.

## 1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미국 무역 동향

### □ 최근 미국의 對中 무역액이 큰 폭으로 하락

- 미국의 對中 관세제재가 시작된 2018년(트럼프 1기)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큰 틀에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對中 무역 규모가 크게 감소



\* 자료 : 미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

### □ 미국 무역에서 脫중국화 가속

- 작년 미국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변경
- 트럼프가 중국의 미국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멕시코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25% 관세를 공약한 바 있지만 큰 기

조는 脫중국인 만큼 USMCA\*로 묶여있는 멕시코와 캐나다, 한국·대만 등 기존 경제동맹국 중심으로 무역 확대와 지역블록화 심화 전망

\* United States-Mexico-Canada Agreement :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을 대체하여 미국, 멕시코, 캐나다 세 나라가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됨

<표1> 美 수입국 순위 및 수입금액 변화 (단위 : 백억달러)

| 순위 | 국가   | 수입액  |      |      | 연평균 증가율(%) |
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   |      | 2021 | 2022 | 2023 |            |
| 1  | 멕시코  | 38.3 | 45.2 | 47.5 | 7.5        |
| 2  | 중국   | 50.4 | 53.6 | 42.7 | -5.4       |
| 3  | 캐나다  | 35.7 | 43.7 | 41.9 | 5.4        |
| 4  | 독일   | 13.5 | 14.7 | 15.9 | 5.8        |
| 5  | 일본   | 13.5 | 14.8 | 14.7 | 3.0        |
| 6  | 한국   | 9.5  | 11.5 | 11.6 | 6.9        |
| 7  | 베트남  | 10.2 | 12.8 | 11.4 | 3.9        |
| 8  | 대만   | 7.7  | 9.2  | 8.8  | 4.5        |
| 9  | 인도   | 7.3  | 8.6  | 8.4  | 4.5        |
| 10 | 아일랜드 | 7.4  | 8.3  | 8.2  | 3.7        |

\* 자료 : 미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

□ (단기) 美 동부연안과 캐나다·멕시코 국경지역, 韓, 대만 등 경제동맹국 중심으로 물류공급망 재편 전망

- 인플레이션감축법(IRA\*) 폐기 또는 조정, 보편관세 10% 인상(對中 60%), 화석연료 부활, 상호무역법 제정 등 反 바이든 정책으로, 미국 동부연안과 캐나다·멕시코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와 높은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

\* Inflation Reduction Act(IRA) :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하는 법안으로, 태양광 패널,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 지원, 태양열 설치 세금공제, 전기차구매 세액공제 등 내용 포함

“트럼프는 바이든의 30억 달러 물류인프라 사업(IRA 연계 친환경사업)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 말은 철도, 도로 인프라가 낙후한 내륙보다 해안 쪽 그리고 항만이 4-5개 밖에 없는 서부보다 36개 항만이 있는 동부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..

... 미국 인구의 2/3가 집중되어 있고,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공급망이 묶여있으며, 세금도 낮고 도로·항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는 미 동부연안과 동남부지역(예 : 텍사스, 일리노이 등)이 미국의 타지역보다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.. 아울러 USMCA 강화로 멕시코·캐나다 국경지역 물량이 늘어날 것입니다...

... 우리 기업들은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물류거점 확보와 투자를 검토해야 합니다“

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물류공급망센터(美뉴저지 소재) 센터장 인터뷰

- 나아가 한국, 대만 등 미국의 경제동맹국과 인도, 베트남과 같은 전략적 경제 파트너를 포함해 무역 확대와 지역블록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공급망이 기존 중국 중심에서 USMCA(북미)와 한국, 대만 등 美 경제동맹국 중심으로 확대·재편될 것으로 전망됨

## □ (중장기) 美 전략산업 제조업기지화로 향후 아시아 역수출 물류흐름 확대 전망

- 미국은 반도체, 2차전지, 전기자동차, AI, 양자 컴퓨팅 등 주요 핵심 기술제품에 대해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데, 핵심산업의 자국내산업화(제조업기지화)가 진행되어 글로벌 수출입 물류공급망 패턴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
- 과거 한국의 소부장(소재·부품·장비) 등 중간재가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동했던 것에서 앞으로 몇 몇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중간재가 곧바로 북미로 건너가 역내에서 가공·조립을 거쳐 최종재가 되고, 다수는 미국내 소비되지만 일부는 해외로 수출되는 물류흐름으로 바뀔 것
- 향후 5년 내 생산시설이 완비되면 미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고 나아가 해외,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흐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

\* 자료 : 이성우 외, 한국-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 방안연구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24, 12 발간 예정(2024.10월 최종보고 자료)

### □ 美 동부연안 및 국경 지역, 인도·동남아 등 글로벌 공급망 거점 중심 선제적 물류인프라 확보 필요

- 대선 이후 미국 정책에 맞춘 공급망 체계 전환을 살펴 USMCA(북미), 한국, 대만 등 美 경제동맹국과 인도·동남아와 같은 전략적 동맹국 등 글로벌 주요 공급망 거점을 중심으로 항만·터미널 등 물류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
- 특히, 물류기업은 과거 아시아발 미주향 물동량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해 온 것에서 벗어나,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동부연안지역, 미국과 캐나다·멕시코 국경지역에 대한 관심 필요

### □ 북미시장 맞춤형 비즈니스모델 개발

-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북미 공급망에 새롭게 진입하는 아시아의 전략적 동맹국들이 한국 항만을 환적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미시장에 특화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공략할 필요
- 한국은 선진물류시스템(통관, 항만인프라 등)을 보유하는 미국의 핵심 경제동맹국으로서, 이들에게 빠르고 안정적인 물류서비스가 제공되는 매력적인 물류거점으로 인식될 가능성
- 특히 한국은 반도체·2차전지 등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해운, 항공 등 물류 분야에서도 글로벌 역량을 보유

- 공급망 변화 선상에서 3PL·풀필먼트 서비스, 터미널 인프라 운영 등의 물류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

#### □ 물류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

- 한국 물류기업은 한국발 물류업무 수행에 익숙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나, 앞으로는 멕시코, 캐나다 등 해외 공급망 거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화주기업이 많아질 것
- 현지 물류서비스 수행 경험이 부족한 한국 물류기업들이 새로운 물류거점에 개별 기업단위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, 현지에 진출한 한국 물류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공생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

#### □ 제조·유통 등 화주기업이 물류기업을 동반진출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 필요

- 원활한 물류활동이 기업의 비용절감 및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조·유통 등 화주기업도 물류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서로 윈윈하는 노력 필요
- 물류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고, 유통물류 정보의 공유를 통해 효율화·최적화를 모색하는 노력 필요

□ 물류정책 통합거버넌스 구축

- 국토부·해수부·산업부 물류 거버넌스 통합체계 구축
- 물류공급망 위원회 설립

□ 화주·물류 상생기반 마련

- 화주-물류기업 동반진출 협력체계 구축
- 북미진출 한국기업 Alliance 구축

□ 물류공급망 인프라 지원

- 북미 등 물류공급망 거점에 인프라 확보
- 기업의 클러스터링/공동화 지원

□ 고부가가치 물류업 육성

- 물류금융, 물류부동산, 물류컨설팅, 물류IT 등 영역 다양화
- 콜드체인, 특수물류,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Biz 개발